

< 김문수 후보 대표공약 >

① 경기야 날자꾸나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제정

② 사통팔달 경기도

: 1시간 경기도 만들기

1. 경기야 날자꾸나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제정

■ 현황

- 1982 군사독재시절에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해 수도권의 과밀방지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이 막히고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했음.
- 이후 수도권 주민의 빗발치는 요구에 밀린 중앙정부의 시혜적인 조치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수정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이어져 왔으나 수도권 공간과 산업발전의 근본적인 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속 억제되어 왔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동북부지역은 낙후된 농촌, 삼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집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접경지역관리법, 팔당수계관리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지역 저발전이 계속되고 있음.

■ 목표

-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경기도와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공장 등의 신·증설, 쾌적하고 자족적인 대규모 주거단지 설립을 가능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성장에너지 경기도가 되도록 함

■ 방법

- 이미 본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체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51명임. 본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임. 최근 열린우리당의 진대제 후보가 본인의 수정법폐지법안에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그를 지원하는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동의한다면 본 법안은 쉽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지사가 되어 도지사 직속으로 <수도권규제효과추진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로 인한 각종 피해와 민원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청원할 예정임.

■ 비용

- 0원

2. 사통팔달 경기도 : 1시간 경기도 만들기

■ 현황

서울집중의 수도권 도로망으로 인해 경기도의 교통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일산과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전체의 37.6%로 높은 수치이며 특히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로의 인구 유입이 늘면서 이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확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기도 31개시군 사이에, 경기도와 서울사이에 교통체계의 차이로 인해 도민이 2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도 교통관련 민원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

■ 목표

- 경기도 전역의 1시간내 도달

■ 방법

- 1) 서울 집중의 방사형 도로를 격자형으로
- 2) 상습 정체구역 해소
- 3) 경기 서울 인천 버스 전철 환승요금 폐지
- 4) 심야버스 운행 시간 연장 및 노선 다변화
- 5) 수도권 교통 정보,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

사례 : 상습 정체구역 해소 방안의 경우

평균통행속도가 30km이하인 곳, 평균통행속도의 변화가 이전 구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나 지점이 정체구간으로서,

경기도 광역교통기획단에서 시. 군의 요청을 받은 지점(158개소)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이 제안한 지점 (95개소).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서 상습 정체구간으로 발표한 지점(129개소)

철도역 광장 (120개소) 등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이 두 달 동안 현지실사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05개소 선정

상습정체구역은 4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개선
교통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경우는 도로확장을 통해,
불합리한 교차로, 차로불균형 등 도로의 기하구조적 문제는
혼잡 개선을 위해 차선 폭이나 교차로 구조 개선
신호체계의 불합리나 불법 주정차, 이면도로의 과다접속 등은 혼잡개선과 도
로 개선
철도역 앞의 환승체계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혼잡은 일반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과의 동선 분리를 통해 개선

1년에 126곳씩 4년 동안 연차적으로 개선

■ 비용

총 사업비 1조원.

한 해 약 2,500억원 (경기도와 해당 시 군 등이 분담)

경기도가 도로와 관련해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00억원 정도
로 이를 교통 정체 해소에 우선적으로 사용.

수도권의 한해 교통혼잡 비용이 약 6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이 큼.